

연예뉴스 스테이션

정우-김유미 등 주말 스타들 잇따라 웨딩마치



주말 스타들이 잇따라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연기자 정우(35)와 김유미(36)가 16일 오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웨딩마치를 올렸다(사진). 가족과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예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우는 신부 김유

미를 위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부르며 사랑을 맹세했다. 가수 소향도 '꽃밭에서'를 축가로 선선했다. ♥개그맨 이상훈(34)은 17일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6세 연하의 물리치료사와 1년여 교제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사회자 박성광을 비롯해 박성호 유민상 김기열 박영진 허경환 등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예식 이후 두 사람은 미국 하와이로 6박8일의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룹 SG워너비의 멤버 이석훈(32)도 이날 발레리나 최선아(29)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앞서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은 2011년 MBC '두근두근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났다. 이석훈의 동료 멤버 김용준과 김진호가 축가를 불렀다.

'그레이의 50가지...' 골든 라즈베리상 후보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최악의 영화' 후보로 꼽혔다. 미국 골든 라즈베리상 측은 최근 2월27일 열리는 제36회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 후보자를 공개했다. 골든 라즈베리상은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열리며 '최악의 영화'를 뽑는 무대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와 함께 '판타스틱4' '픽셀' 등이 후보에 올랐다. '최악의 남자배우'에는 '모데카이'의 조니 텀을 비롯해 '픽셀'의 아담 샌들러, '주피터 어센딩'의 체닝 테이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악의 여자배우'로는 '모데카이'의 귀네스 펠트로, '더 보이 넥스트 도어'의 제니퍼 로페즈 등이 후보가 됐다. 실제 수상자(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1개국 900여명의 골든 라즈베리 멤버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된다.



황정민·소지섭·송중기, 영화 '균함도' 캐스팅

배우 황정민(왼쪽 사진)과 소지섭(가운데) 그리고 송중기(오른쪽) 등 영화 '균함도'의 출연진이 꾸려졌다. 이들은 류승완 감독의 차기작 '균함도'(제작 외유내강) 출연을 확정하고 촬영을 앞두고 있다. '균함도'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일본 하시마를 배경으로 그 탈출기를 그린다. 황정민은 뜻하지 않게 균함도로 끌려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물을 연기한다. 소지섭은 경성 최고의 '주먹'으로 불리는 캐릭터를, 송중기는 독립군 역할을 각각 맡는다. 특히 송중기는 2012년 '늑대소년' 이후 4년 만에 영화에 나선다.

안상태, 5년 만에 KBS '개그콘서트'로 복귀

개그맨 안상태가 5년 만에 KBS 2TV '개그콘서트'로 복귀했다. 안상태는 17일 '개콘'의 새로운 코너 '요리하는 고아'에서 셰프 캐릭터로 출연해 과거 인기코너였던 '깜빡 흡소핑'의 안어빙과 '봉숭아학당'의 안상태 기자와는 또 다른 바보 연기를 선보였다. 안상태는 "코너는 식재료를 사탕에 빚어 설명하며 요리하는 '쿠팡'이라고 소개하며 '말투와 화법이 독특하다'고 말했다. 코너는 13일 녹화 후 처리된 관객 투표에서 3위에 오르며 첫 출발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1월 10일~1월 16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주간관객	누적관객	개봉일
1	레버넌트: 죽음에서...	551,183	553,749	01/14
2	굿 다이노	535,295	872,831	01/07
3	히말라야	465,502	7,394,029	12/16
4	내부자들: 디 오리진	405,304	1,793,610	12/31
5	그날의 분위기	250,603	254,371	01/14
6	나를 잊지 말아요	184,989	405,583	01/07
7	설록: 유령신부	164,038	1,249,919	01/02
8	포인트 브레이크	137,310	267,356	01/07
9	구스범스	114,335	123,519	01/14
10	평구는 못말려 극장판	102,145	178,037	01/07



t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16일 종영하면서 이제 각기 다른 곳에서 활약할 '쌍문동 5총사'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또 네 번째 '응답하라' 시리즈는 어떤 시대로 여행을 떠날지 관심을 모은다. 사진제공 | tN

# '응답하라 1988'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응팔’의 여운, 다시 즐긴다

롯데월드 '택이 방' 재현·사진 전시 3월5일 '응팔' 드라마 콘서트 예정 '쌍문동 5총사' 사진회 공약 이행도

케이بل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16일 20회로 종영했지만 아쉬워 하긴 아직 이른다. 금·토요일 '본방사수'하며 여주인공의 남편이 누구일지 '추리'하는 재미는 이제 즐길 수 없지만 다양한 이벤트가 팬들을 위해 마련됐다. 조금 더 색다르고 가깝게 그리고 연기자들의 또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직접 보고 만지고...세트 재현

'응팔'의 세트는 보는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응팔'은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골목을 가운데에 두고 다섯 가족이 온

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고정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제작진은 과거 군부대가 있던 경기도 의정부 녹양동에 당시 골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세트를 마련했다. 제작진과 출연진에게는 지난해 7월부터 종영까지 제작 기간 7개월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기도 하다. 물론 시청자에게도 진한 감동을 안겨준 공간이다. CJ E&M은 여러 제안 끝에 세트의 일부 소품을 옮겨 다른 곳에 옮겨 재현하기로 했다. 25일부터 3월31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안에 '응팔'의 일부 소품과 극중 최백(박보검)의 방을 꾸며놓을 계획이다. 또 드라마 속 명장면과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사진도 함께 전시한다.

●'쌍문동 5총사' 노래 실력?...콘서트 개최

헤리·류준열·이동휘·류혜영이 무대에 오른다. 3월5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드라마 삽입곡 등으로 구성하는 콘서

트다. 출연자들의 공연도 계획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가 더욱 높다. 이들 '5총사' 중 박보검과 고정표는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무대에는 OST로 등장한 노래를 실제로 부른 가수 중 변진섭이 출연하며, 리메이크 가수는 노을, 박보람, 와블이 참여한다.

하지만 음악이 전부가 아니라 점도 특징이다. '응답하라 1994' 때에는 정우가 노래를 부른 것 외에도 출연자들이 팬들과 드라마에 얽힌 뒷이야기를 나누며 명장면을 다시 연출해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때문에 '응답하라'의 콘서트는 '드라마 콘서트'로 불린다.

●영화와 광고로...향후 활동

'쌍문동 5총사'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것은 19일 4박5일 일정으로 떠나는 푸켓 포상휴가와 방송 전 내건 공약 이행의 무대이다. 여성 출연자들은 평균 시청률 8%, 남자 출연자들은 10%를 돌파하면 각각 남자교과와 여교

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18%를 넘었을 경우에는 모두 극중 캐릭터 의상을 입고 사인회를 열겠다고 했다. 19.8%의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후 각자의 활동에 주력한다. 우선 '5총사' 모두 드라마 일정으로 소화하지 못했던 광고 촬영에 시간을 쏟는다.

그럼 걸스데이 멤버이기도 한 헤리는 23일과 24일 홍콩 '리스 투 유어 아이즈' 콘서트에 선다. 또 밀려든 드라마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2011년 데뷔 이후 최고의 화제와 관심 덕에 '대세'를 예약한 박보검은 차기작 선정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 류준열은 스크린 활약을 예고했다. 3월 말 '글로벌데이'와 '계춘할망'으로 관객과 다시 만난다. 고정표는 류승룡, 장동건과 함께하는 영화 '7년의 밤', 이동휘는 유해진과 '키 오브 라이프'와 임시완 등이 출연하는 '원라인'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기세다.

## '응답하라' 시리즈는 계속될까

신원호 PD "말할 때까지 할 것" 약속 누리꾼들 벌써 '응답하라 1980' 기대

'응답하라 1988'이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와 화제를 이어가기 전 연출자 신원호 PD는 "시리즈가 말할 때까지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전 시리즈에 비해 '응팔'이 성공하리라는 장담도 못 하였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2012년 '응답

하라 1997'(응칠)의 흥행 이후 이듬해 '응답하라 1994'(응사)가 그 후광을 이은 것과 달리 '응팔'은 그 2년 뒤 제작된 데다 이전 시리즈보다 더 과거로 이동한 시대배경 탓에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많았던 터였다.

하지만 '응팔'은 결국 큰 성공을 거뒀다. 이에 다음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 키는 신원호 PD 등 제작진의 의지에 달려 있다. 아마도 신 PD의 계획은 현재진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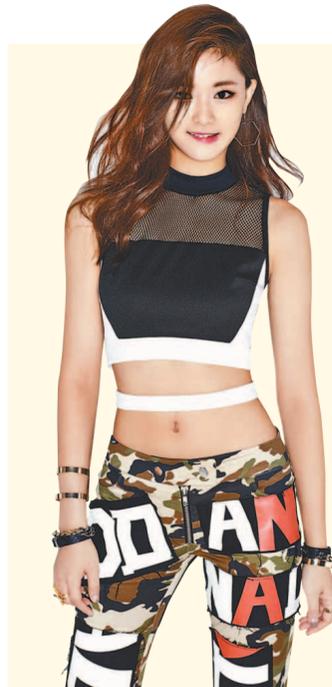
일 것이다. '응칠' 종영 후 신 PD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1994년의 이야기를 그리면 재미있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실제로 이듬해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

그렇다면 다음 시리즈는 어느 시대로 향할까. 신 PD는 1회 방송 전 시청지도서 편에 카세트오디오의 라디오 주파수 부분을 클로즈업했다. 화면에는 '1997-1994-1988' 등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의 시대적 배경을 가리키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에 따르면 그 이후는 '1980'이다. 이 때문에 누리꾼은 작은 소품에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복선과 암시에 공을 들이는 신 PD의 연출 개성을 떠올리며

'응답하라 1980'의 탄생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답하라' 시리즈의 보는 재미 가운데 하나인 '(여주인공의)남편 찾기' 역시 다른 패턴을 그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응팔'에서 성덕선(헤리의 남편)의 정체가 당초 예상과 달리 김정환(류준열)이 아닌 최택(박보검)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스포일러가 쏟아져 향후 시리즈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제작진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물론 다음 시리즈 제작을 전제로 말이다! 백승미 기자



## 썬위 사태 불똥 튕까? 국내 연예계 초긴장

썬위, 중국 웨이보 검색 금지어 포함 양안 관계 악화...반한류 확산 우려도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썬위(16·사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내 연예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썬위가 작년 11월 인터넷 방송에서 대만기를 흔든 것을 최근 뒤늦게 중국에서 '썬위=대만독립 지지자' 논란으로 비화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누리꾼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썬위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JYP)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또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의 민감한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실제로 사태는 16일 끝난 대만 총통 및 입법원 선거의 막

판 최대 이슈가 됐다. 이에 트와이스뿐 아니라 2PM 등 소속 가수들의 중국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JYP는 썬위와 함께 중국 누리꾼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래도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중국 누리꾼의 공격이 다른 한국 연예인을 향한 비난 등 자칫 반한류 감정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한국 연예인들 트업계의 가장 큰 해외 무대로 떠오르며 거대 자본의 이동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향후 중국 한류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국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로 한류 파트너 국가의 문화와 관습,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향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갈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이 당선되면서 양안관계의 긴장감이 더하는 상황이다.

16일 차이잉원 당선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16살의 소녀가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중국의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중국 웨이보는 16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와 썬위를 금지 검색어에 포함시켰고, 앞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은 연예의 정치화도, 정치의 연예화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두 썬위 사태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 조수미 주제가 효과? 관객 몰리는 '유스'

2주 연속 다양성영화 흥행 1위

스크린에서 '조수미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주제가를 부른 영화 '유스'가 2주 연속 다양성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조수미가 부른 '심플송'이 미국의 주요 영화상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소식이 전해졌고 동시에 관객수가 늘고 있다.

7일 개봉한 '유스'(사진)는 상영 2주째 주말인 17일까지 누적관객 4만명을 동원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하루 3000여명을 모으는 상황. 수입사 그린라미미디어는 "조수미 주제가의 화제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심플송'이 10일 열린 미국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튿날부터 관객이 늘어 50~60대에 불과한 상영관에서 매일 3000~4000명씩을 불러 들였다.

'심플송'이 골든글로브에 이어 2월 제8회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것도 관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디와이어 등 영화 매체들은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5곡 가운데 조수미의 '심플송'을 유력한 수상 후보작으로 꼽고 있다. 조수미는 2월28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 등 참여할지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유스'는 은퇴한 세계적인 지휘자가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는 도중 겪는 일을 그렸다. 조수미의 '심플송'은 영화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쓰였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